

## 창업대중화 시대의 열쇠: 창업교육의 대중화



글 : 김석현<sup>1)</sup>

해외 경제매거진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2014년 1월 18일 '캠브리안 시대의 도래'라는 주제로 기술창업(tech startup)의 동향을 소개하고 전망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의 특집 기사는 기술창업이 2000년 IT거품이라는 침체 이후에도 점차 회복세에 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그 동력이 커지고 그 질적·양적 양상이 새로운 창업 생태계의 형성 (그래서 캠브리아기에 비유)이라는 새로운 계기에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의 특집은 이후 2014년 한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에 걸친 창업 붐을 예고한 선견이기도 했다. 2014년 미국의 창업투자자금은 50조 원 규모로 전년도의 30조 원 규모에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한국도 2014년 신설벤처기업이 약 900개로 전년도의 750개를 크게 상회했고, 벤처캐피탈투자 금액이 1조6천억 원 규모로 역시 전년도에 비해 2천5백 원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해외자본의 한국의 스타트업에 투자 등 굵직한 국제적인 뉴스가 많아지면서 한국이 창업기업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2015년에도 이러한 창업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구글이 영국 런던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창업가들을 위한 캠퍼스를 서울에 둬으로써 한국의 창업이 세계적인 뉴스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러한 창업 붐이 거품일지 아니면 새로운 경향성

일지는 지금으로서 예단할 수 없다. 1990년대 창업과 투자의 붐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신경제'라는 기존 경제와는 다른 체제에 기반하다는 전망이 제기되었지만 2000년 결국 거품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창업 붐에 직면하여서도 단지 낙관적인 전망에만 의존해서 창업, 투자, 정부지원을 하기에, 반대로 조심스럽기만 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기에도 다 고민이 따른다. 미래예측에만 기대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미래예측이 갖는 원천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예측 자체 보다는 현재의 창업 붐의 역사적 흐름에서의 위치와 창업 붐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미시적 조건들에 대해서 파악함으로써 현재의 창업 붐의 의의와 특징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역사적 흐름에서 지금의 창업경향은 창업자본주의(entrepreneurial capitalism)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대기업 중심의 관리자본주의(managerial capitalism)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술변화의 역동성과 다양화로 인해서 일상의 경영관리보다도 새로운 기술흐름에 기민하게 적응하는 작은 기업 또는 창업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 이후 강해져서 빌 게이츠(Bill Gates), 스티브 잡스(Steve Jobs)

1) 독립기고자,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등이 그러한 시대 흐름을 타고 또한 주도했다. 이것이 지금에 이르도록 더욱 심화되어 더 많은 스타 창업가들이 발굴되었고,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등의 창업기업들이 짧은 업력에도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부상한다. 이는 역으로 기존의 대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인텔(Intel) 등 20세기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벤처 투자 등을 통해서 창업 에너지를 대기업에 흡수하려는 노력을 하기에 이른다.

미시적인 조건의 변화는 특히 2000년대 이후 ‘창업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의 형성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인터넷 붐은 대단한 파급력을 보였지만 기술전문가들이 각각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기업 자체에서(in-house) 만들어서 제공한 정도로서 그 사회적 분업이 심화되지 못했다. 이에 반해서 2000년대 들어서는, 그 키워드로 부상한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시사하듯이 기술, 비즈니스, 자금, 인력, 마케팅, 광고, 교육훈련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기능 또는 자원이 이미 ‘플랫폼’으로 갖춰져 있어서 매우 싼 비용으로 접근가능하기에 이르렀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Apple)이 아이폰으로 일으킨 혁명적인 변화는 아이폰을 플랫폼으로 하여 누구라도 앱(application)을 통해 세계 시장을 상대로 비즈니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 앱을 기반으로 아무런 자본과 인력도 없었던 개인들, 심지어는 청소년들도 세계적인 비즈니스 스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인력을 조달하는 텔런트 플랫폼, 자금의 대중적 모집인 크라우드 펀딩, 창업교육과 자금지원 플랫폼인 엑셀러레이터 등 다종다양의 플랫폼들이 창출되어 시너지를 내는 생태계가 이루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빠른 속도와 저비용으로 창업이 가능

해졌다. 그래서 과거 창업이 일부 소수의 기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약해지고, 오히려 ‘창업대중화’라는 개념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창업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아진 시대이지만, 창업의 리스크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최근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로 투자에 기반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커져서 과거처럼 실패가 채무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그 노력과 시간은 기회비용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엑셀러레이터나 공공기관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멘토링,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창업을 교육’하는 창업생태계의 플랫폼으로 주목해야 한다. 지금은 적어도 창업이 주사위 던지기 식의 확률에 기반한 ‘모험적’ 활동은 아니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20세기 교육이 ‘문자해독의 대중화’를 이룩했다면, 이제 21세기 교육은 ‘창업의 대중화’에 부응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이 교과서 중심의 표준화된 지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기의 인생을 담아낼 수 있고 표현해낼 수 있는 업(業)을 개척해간다는 넓은 의미에서, 수동적인 삶이 아닌 능동적인 삶의 길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다 넓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창업교육이 기업의 소유자로서 또는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21세기 대중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20세기와 달리 21세기엔 ‘주어진 길’은 갈수록 생소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창업을 교육해야 하는 시대임과 동시에 교육이 창업을 지향해야 하는 까닭이다.